

■
그 어느해보다도 올해 학생회 선거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권의 학원 탄압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 조국의 희망으로 설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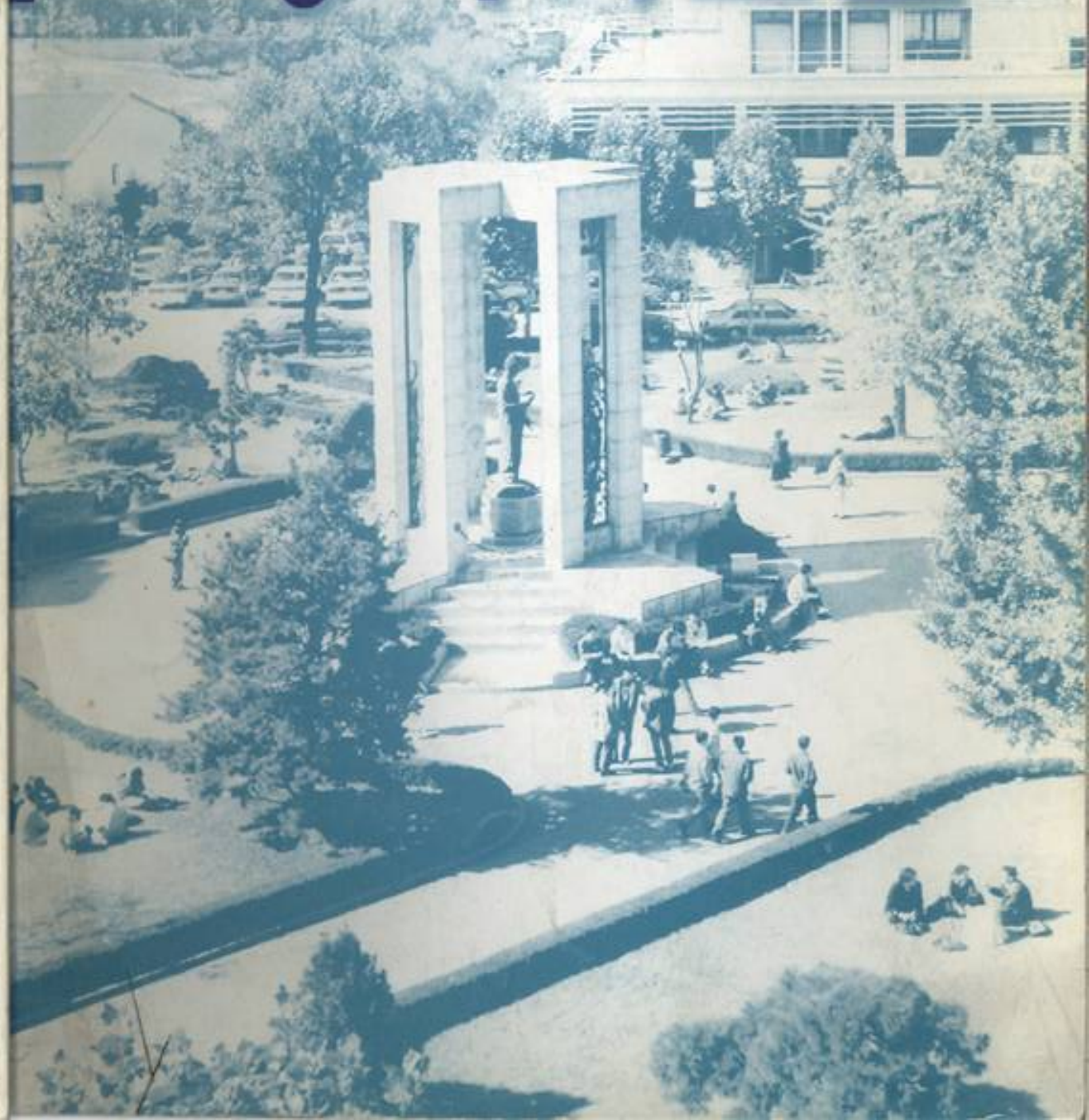
학우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표가
29번째 올바른 학생회 건설의 초석이 됩니다.

■
꼭 투표하십시오!

건설 28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대 충여학생회 후보

정책자료집



화, 뒤집어봐~



당신의 가슴을 희망의 빛깔로
물들이는 사람들

정후보자

김인영 / 사학 95

넷째딸. 엄마에게 결국 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효를 저지르며 세상에 태어났다. 다행히 다섯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자라면서는 '남동생을 봤다'는 이유로 귀여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열일곱. 치마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고생답게 보인다는 이유로 나는 불편함과 추위에 대한 인내를 강요받아야 했다. 도대체 여고생답게 보이려면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 종아리가 떨어지나갈 것만 같은 추위정도는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

대학교 2학년. 집에 가다가 세명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저항하자 그들은 욕을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집에 돌아와 피출소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물어본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내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그 이후로 나는 늦은 밤 벌을 보며 걷는 여유로움을 잃어버렸다.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불안해 하고 혹시 누군가가 나타나면 걸음을 빨리하다 못해 뛰어가야만 했다. 내가 아무도 없는 밤길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 불만만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지겹다. 불만이 불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불만을 품알거리는 것을 넘어 이제 당당히 외치려 한다. 일상의 전복을 꿈꾸며...



부후보자

홍미리 / 화학 95

1977년 2월 3일, 우리집에서는 엄마의 아기주머니에 있을 때부터 '아들임이 분명하다'는 추측으로 인해 호의호식했던 아이가, 불행하게도 넷째딸로 태어났다. 딸로 태어난 나는 다소곳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명절 때에는 음식을 마련하느라 하루종일 일을 해야했고, 초등학교 때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나는 늘 반장이 아닌 부반장이 되어야만 했다.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입학했다. 처음 가 본 술자리에서 '여자는 남편과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남자에게 술을 따르면 안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능하면 그 누구에게도 술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 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숙한(?) 한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생각이 점점 어리석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명절 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할 때, 남편의 막강한 힘과 무한한 능력을 과시하는 TV 프로를 볼 때, 여자는 전생에 억겁의 죄를 짓고 태어난 거라면서 묵묵히 살아오신 할머니를 볼 때, 호적을 피가는 언니를 볼 때, 그리고 내 친구가 강간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손이 나의 엉덩이를 더듬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싫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성임을 인정하려 한다. 그리고 '참피한 여성'으로부터 '당당한 여성'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싶다.





여자가 되는 것은 사자와 사는 일인가

고정희

어린 딸들이 받아쓰는 훈육 노트에는
여자가 되어라
여자가 되어라..... 씌어 있다
어린 딸들이 여자가 되기 위해
손발에 돋은 날뿔을 자르는 동안
여자 아닌 모든 것은 사자의 발톱이 된다

일하는 여자들이 받아쓰는 교양강좌 노트에는
작장의 꽃이 되어라
일터의 꽃이 되기 위해
손톱을 자르고 리본을 꽃고
얼굴에 지분을 바르는 동안
꽃 아닌 모든 것은 사자의 아빨이 된다

신부들이 받아쓰는 주부교실 가훈에는
사랑의 여신이 되어라
일부종신의 여신이 되어라..... 씌어있다
신부들이 사랑의 여신이 되기 위해
콩나물을 다듬고 세우튀김을 만들고 저장거리를 해내는 동안

사랑 아닌 모든 것은 사자의 기상이 된다
철학이 여자를 불러 사자가 되고
권력이 여자를 불러 사자가 되고
종교가 여자를 불러 사자로 둔갑한다

그러하여 여자가 되는 것은
한 마리 살진 사자와 사는 일이다?
여자가 되는 것은
두 마리 으르렁 거리는 사자 앞에 잠들고
여자가 되는 것은
세 마리 네 마리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새끼를 낳는 일이다?
그러니 여자여
그대 여자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자의 발톱은 평화?
사자의 아빨은 고요?
사자의 기상은 알찬?



글 심는 차례

- 6 포커스 1996년, 여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 8 성폭력 공화국
안전지대없는 세계 제2위의 성폭력 공화국
망각하는 자 그대도 공범이다
성폭력 특별법에 힘을 실자
- 16 인터뷰 여학우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 여성운동가 변리나씨
- 18 제언 위기를 넘어 대안의 실천으로
- 20 평가와 기초 우연을 넘어 재연으로 그리고 반복으로
- 24 진단
동약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 동약 여성 복지의 현재
여성학 교실 이데아 : 동약여성학 강좌의 현재
- 28 성정치 우리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 31 여성단체들 소개
- 32 공약 제12대 총여학생회, 이렇게 건설하겠습니다
- 38 만화 이갈리아의 영토



아래, 세상을 감싸안을 수
있는 여성이 움직입니다.

1996년, 여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1. 단지 '침묵'라는 이유만으로...

118장 남중생, 138장 여중생을 제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다!
96년 2월 고인사실 발표날, 딸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어섰다.
뱀어목을! 여자라는 것도 서러운 데...

2.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조직적 폭력 : 종교위원장부

3월 28일,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가 열렸다.

3. 아동성폭력, 안전지대 없는 세계 22위의 성폭력 공화국!

경기도 안산 W유치원 정아무개(84) 원장은 성추행으로 원아 부모 38명으로부터
포소당했다. 원장의 성추행 대상은 경악스럽게도 5살 안팎의 어린아들이었다.
6월 27일, 서울 S여중 A양은 기말고사를 보던 중 양승기 터져 임신 사실이 드러났다.
소녀가장 이 아무개양(11)이 동네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7월 2일
집 부근 아산에서 극악을 미치고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성폭력 공화국에는 더이상 아름다운 성문 없다!

4. 과다 노출이 성추행을 유발하고 성추행이 성범죄를 일으킨다?

세상에 '강간'만 당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 없었군.
96년 8월 25일 경찰청이 풍기문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를 지나치게 드러낸
복부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라'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
그런데 여자끼리 단속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 남자라니 뭐라니!
이제 남자들도 옷통벗고 다니면 경범죄?!!

5. '내일은 이별일을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 여성들은 입지려할 원한다.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KOEX)에서는 10월 28, 29일 이틀간
여성인력활용전이 열려 5만여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그리고 10월은 고용평등의 달.
'우리 회사는 여성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연차로 사라질 수 있을까?

6. 사다를 거스르는 이문영의 '선택'

가득이나 문제 많은 한국 문화의 여성성 폭력에 앞장선 이문영은 아주 고고하게
장세부인의 입대기를 소설로 연재중이다.



96년의 노출단속



70년대의 미니스커트 단속



마닐라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아동성폭력을 규탄하는

안전지대 없는 성폭력 공화국

얼

마전 연세대 시위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도 결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여성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이 연행되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볼때 권력을 앞세운 남성들의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권력이 공권력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남학생들 가운데 가슴이 꼬집히고 성적비하의 언어로 고문을 당한 학생이 있는가. 이것은 전경들이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상황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의 문제이며 이 문제의 가해자를 추상적인 공권력으로 상징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명백히 권력을 가진 남성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

난 일년 남짓한 시간동안 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우선 사회내에서 성폭력에 대해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모중학교 교장의 성추행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들도 안되는 중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은 한동안 대중매체에서 갖가지 이슈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리고 때마침 교실에서 여중생이 출산을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열달이 다 되도록 부모들조차 몰랐다는 사실, 같이 뛰어 놀던 반 친구들조차 몰랐다는 것, 게다가 더욱 기막힌 것은 이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성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폭행을 당하고도, 임신을 하고도 끝까지 숨기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쉬 숨기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성기중심적인지를 보여 준다.

죽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 보다는 더한 낙인을 가지고 마치 주홍글씨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의 관점이 피해자의 대응으로 이야기되어 지는 것, 단지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만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한

편 단지 보호자 역할을 할 만한 울타리 밑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동네에서 소녀가장을 12명의 남성들이 (여기에는 나이 어린 중학생부터 아저씨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들이 포함된다.)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사건은 급기야 도덕불감증 사회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 마치 한꺼번에 일어난 일인양 성폭력사건의 일들을 현사회의 성격과 결부지어 이야기 하려고 했다. 거기에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도 단단히 한몫을 했는데, 여러가지 일련의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여성의 과다 노출에서 찾고자 했는지 정부에서는 과다 노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다. 거기에 더욱 아이러니 한것은 지금까지 그 법의 처벌대상이 된것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아닌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속옷만 겹치고 다니던 남성들이었다. 남성들이 여성 개인의 복장까지 목격려고 만든 법이 결국은 이 사회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사회인지를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국민학교때 담임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쉬쉬하며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결혼도 못하고 지내다가 동창회에서 피해자가 자신만이 아님을 알고 결국 그 담임을 찾아내려고 노력중인 한 여성의 이야기가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이제 어린이 성폭력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정말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일 것이다.

지

난 5월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서 일어난 고대생의 난동 또한 연대 성추행사건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단지 대학 시절의 낭만, 호기에서 한번쯤 알아날 법한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볼 때 명백히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경들이 연행하는 남학생들을 구타는 했을 망정 가슴을 꼬집거나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여 만약 고대생들이 남학우가 건재(?)해 있는 우리학교 대동제 폐막식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얼

마전 하교길에 배가 너무 아파서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 갔다가 분명한 여고생의 얘기가 사회면에 실린 적이 있었다. 우스운 것은 바로 그 옆을 장식한 집안 식구들과 학교 교사의 인터뷰였다. 평소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으나 다만 체격이 좀 큰 학생이었다는 내용이었다. 공부만 해도 힘든 고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 10달 동안 임신공포에 시달렸을 것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다만 보통 학생에 비해 체격이 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고

대 남학생이 한 여대생을 꺾안은 사건이 있었고 그 남학생에게 사과문과 함께 6개월간 사회단체에서 교육받고 봉사활동을 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여학우들의 반응은 이 정도의 처분을 내릴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남학우들은 이러한 사소한 사건에 처벌을 내리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들을 더욱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폭력의 범위가 결코 성기중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

폭력의 유형이 실제로 연속적인 상격을 띠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각각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특정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성폭력의 특정 유형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제한시키고, 그 결과 전형적인(성기중심적인)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주변적인 성폭력들이 법의 규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폭력의 정의를 '정조, 순결'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성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일례로 법적으로는 성폭력을 등급별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폭력이란 권력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폭력, 남성중심의 권력이 가하는 제도장치 문제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㉞



망각하는 자 그대도 공범

- 이미 넘어버린 학내성폭력의 위험수위

얼마전 동아에 성을 둘러싼 대자보 논쟁이 있었다.
동문의 입립 공고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남 학우들은 고교 동문회를 천호동 사창가 앞에서 한다고 공공연하게 대자보를 붙인다.
돈을 주고 SEX를 사느니 안사는나를 떠나 우선은, 남근 중심적이자 소액병적 과시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여학우들은 뺑가리
나다나기조차 맘대로 할 수 없고(학교 마저도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떠도는 소문들을 보라) 과다한 노출은
성범죄를 유발한다 하여 금지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르면 성폭력의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헷갈리게 된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모순적이지 않는가!! 남성들은 자신의 성기를 과시하여 매춘행위를 합리화 한다. 그러는 한편으로
여성들은 성기과시는 커녕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싶지도 못한 실정이다. 물론 별다른 생각 없이 자
보문안을 작성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왜 별것 아닌 것에 흥분하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불합
리한 성역할에 대해, 그리고 남근중심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한 성문화에 무대적야함을 끊임없이 강요
받아왔다. 더이상 남근 과시의 문화를 강요받을 수 없으며, 이제는 분노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
야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 나의 흥분은 너무나도 당연시 해왔던 성/성문화에 대한 고
정관념들에 대한 것이다. 캠퍼스 내에 사창가 운운하는 자보가 나쁠 수 있는것과
그렇게 버젓하게 사창가로의 선행(?)이 붙어도 파식 웃고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끝으로 사과 자보가 불기를 바라며... 문과대 한 여학우가.

도 시관앞에 수많은 동문회 알림 공고가 있었다. 그 중에 ○○고등학교 동문회가 9월 14일 6시에 있었고
모임장소는 천호동 사창가 맞은편의 씨네마극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학교 앞은 재미가 없으니 풍란의
거리, 천호동 사창가 맞은편으로 가자?? 이 대자보를 보고 그냥 무시코 지나쳤던 학우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
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이것이 바로 동아인의 성문화 특히 남학우들의 성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대학내 같은 고등학교의 선후배가 모여 친목을 쌓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동문회를 천호동 사창가 지
역에서 하겠다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읽어내라. 남성중심의 성문화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이는 여성을 비하하고 대상화하며 매춘행위를 당연시
하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사창가주위에서 동문회를 한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사건은 동문회 자보를 붙인 몇명의 학우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성을 둘러싼 이 사
회의 가부장적인 제도/이데올로기 전반에 걸친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문제이다. 요즘 들어 성
폭력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학내 성폭력의 문제도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황속에서도 여전히 '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발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는 우
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정치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고 이 속에서 '성'이란 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릴 뿐이다. 그리하기에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일
뿐이다.

우리는 성을 둘러싼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일상과 성을 과감히 문제제기해야 한다. 남성중심의 폭력적인 문화
가 대학내에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성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물질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다.

동학 성폭력 사례 1

95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한 여학우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등나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때 OO과 조교와 같은 과의 복학생
이 그 여학생을 보고 분노(?)하여 욕설을 퍼부었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 그 여학우가 당당히 맞서자 급기야는 그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질질 끌고갔다 주변 학생들이 이를 말렸던 일이 있었다. 흡연의 문제가 성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보수적인 상황이 대학내에서도 학교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로 이 여학생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드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어떠한 여론의 형성도 없이 우습게 일단락 되어지고 말았다. 오히려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그랬을지라는 온갖 비방과 오해로 여
학우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감춰져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흡연에 대한 남성우위의 시각과 또한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당
사자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휘둘러진 남성중심의 위계적 권력(OO과 교수와 단과대 학생회에서 그냥 덮어두자고 압력을 행사) 그리
고 남성우월주의 구조속에서 희생된 나약한 여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학 성폭력 사례 2

얼마전 명진관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학우가 스타킹을 뒤집어쓴 농예계 강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위아저씨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학
교명신(?)이니까 -얘기 되는 것을 듣고 아저씨에게 집요히 물어보았으나 결국은 모른대며 도망다니시는게 아닌가... 강간을 당한 여학우의 부
모님이 수위아저씨에게 근무중 잘해달라고 물어 하소연을 하셨는데... 수위아저씨가 뽕새 자카면 해결될 문제인지...

동학 성폭력 사례 3

6월말 종강 무렵 학교앞 한 술집에서 OO학과 모 강사가 복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는 두명의 여자들에게 합석을 하려고 요구,
아름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재떨이, 젓가락 심지어는 노가라(?)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다. 서로 따귀를 때리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보았으나 여자측이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아예 너무나 분한 여자측에서 총여학생회로 연락을 하였고, 총여
에서는 직접 만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히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분하긴 하지만 동태생도 아니고
또 대응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끝내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머리 벗겨진 모강사는 OO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
고 있다.

망각하는 자 그대도 공범이다

동학 성폭력 사례 4

올해 7월 여름 농활을 갔다는 OO과 한 여학우가 그 지역 청년에게 강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마침 이 여학우는 성폭력신고 센터에서 '자킴이'라는 상담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었기에 침착하게 일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오히려 주변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은채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면 된거 아니냐..", "이름이 알려지면 네가 피해를 본다", "이 일이 알려지면 농활의 의미가 상하지 않겠느냐..", "이 좁은 농촌에서 그 청년과 부모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느냐..", 등..... 이 사회에서 여성은 어디서나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러하데 도대체 누구의 망각이고 무엇을 위한 망각인가?

타학교 사례 1

얼마전 상군관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강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남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한 연극을 보고 난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였었다.(물론 이는 아한 연극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연극을 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손에는 청테이프와 한손에는 커티지를 들고 (계획적 범죄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는 강간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간은 절대 우발적인 충동으로 일어날 수 없다)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마침 한 여학생이 들어왔고 덮쳤으나 경향(?)부족 탓에 발도 떨어뜨리고 여학생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으니 현재 성대 종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답론 형성을 위해 대자보 작업과 공청회/강연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 남학생은 사과대자보를 실명화하여 붙이고 여성단체에 가서 얼마동안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타학교 사례 2

얼마전 이대 대동계 기간동안 벌어진 '고대생들에 의한 집단 난동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를 두고 "학교간 분쟁이다. 남성과 여성의 놀이문화의 차이이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희석화하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팽배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남성집단의 여성집단에 대한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단순히 이대와 고대간의 싸움으로 등치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만약 고대생이 정말 이대생들의 왕왕파티가 맘에 안들어서 그랬다면 왜 육군사관학교의 왕왕파티장에 가서는 평판을 못 놓는건지 물어보자. 그렇지 않은가?

위

여기서 제시한 사례들은 단지 그 내용이 공개되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며 아마 이것 외에 훨씬 더 많은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아니 이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을 당해왔고, 당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성의 일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본 적이 있는가? 사소한 일이라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드러내면 오히려 여자만 손해라고,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라며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

폭

력은 물리적·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하는 자(혹은 집단)가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집단에게 가하는 물리적/비물리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권력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인 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폭력

범주 아래, 성폭력이란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권력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언어, 시선, 공간 등을 포함하여) 모든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속에서 학내 성폭력이란 학교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인 행위가 (1)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2) 그러한 행위에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

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학내 성폭력이라 정의한다.

우

리는 성폭력을 너무나 성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의 대부분도 여성의 성 sexuality을 둘러싸고 일어난 남성에 의한 여성육체의 통제적 폭력인데 물론 이것은 성폭력의 가장 극단적인 예임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면 남성중심사회의 구조적인 여성과 억압과 차별에 관해서는 그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출연을 둘러싼 성별 구분이라든지, 여성 공간의 부재라든지, 여성의 취업에서의 차별, 남학우들만의 체육대회, 공대에는 왜 여학생들을 위한 쉼터가 없는지, 왜 여성은 성에 대해 무지해야는지, 여성은 과연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 여성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지 등등 남성중심적인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성폭력을 구별하고 있는데(강간이 아닌 그냥 성폭력은 강간보다 행위가 매우 낮다. 구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은가?) 여기서 강간이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으로 삽입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한 여자가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치자. 우리는 그 여자가 그날을 두려움, 공포, 불안, 수치심 등을 어렵지 않게(물론 당해보지 않고서는 감히 그 고통을 말할 수 없겠지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남성의 성기가 삽입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여성을 대상화(호점이 난 여자인가 아니면 기묘한 여자인가...해결해야 할 여자를 흥건한 강간범?)하고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 사회의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적인 태두리가 가지는 의미망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망각하는 자 그대도 공범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소한 일이라고, 절대 정치적이진 않다고 치부되어지던 우리의 일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그리고 여성의 일상적 억압을 드러내자. 지하철안에서, 술자리에서, 길안에서, 학회실에서, 동아리방에서 그리고 연애, 결혼, 가족, 취업...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은 삶의 곳곳에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내에서 우리가 듣는 각종 언어적인 불쾌함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자가기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억울함이 아니던가? 내가 여자가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기본 나쁜 남성들의 시선들, 신체적 접촉, 섹스니까 동기니까 후대니까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남자에게 여자란 한번 킁킁거리어도 되는 대상이고 아래위로 들어봐도 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럼 여자도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불행히도 이 사회의 권력은 남성에게 있고 그러하기에 남자는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기반을 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사회를 문제시하고 이속에서 여성의 일상적 억압과 불행에 해결해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다. ㉔

"남자 섹스가 불을 모 집고 썬웃으며 지나갈 때 ..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자라서 봐준다는 눈이 있었다."

"선배면 다야? 어째는 왜 푹푹쳐?"

"우리와 남학생들은 여학우가 있는 곳에서 ○○수술이 어떻다는 등, 건강편지를 사달라는 등 언어적인 성폭력을 무지 많이 합니다. 이것도 성폭력이지요?"

"저희와 교수님 중에는 남학우들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한 반면에 여학우들에게는 또한 너무 후한(특히 여성답고 이쁜 여학우에게) 분이 계십니다.(침수나 기타 등등) 이를 침수가 잘 나오고 칭찬받아서 좋다하며 마냥 좋아하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성폭력이 아닐까요? 남학생들은 사회에 나가 잘 살 아남게 하기 위해 더 엄격하게! 그러나 여자애들은 대중대중 해도 졸업해 간판만 따 시집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온연중에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학우 여러분! 침수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대중대중, '여자니까.. '의 생각 또한 성폭력입니다."

"남자 북학생들이 불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쓰다듬는다. 너무 싫다. 왜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내게 언어적 성폭력(모욕해주고 싶다)을 자주 사용하던 사람에게 내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고 자신있게 나 가자. 그는 기대(무엇? 여성 = 수동적 = 내숭적)에 어긋났는지 내게 학을 때었다고 했다. 놀라고 충격받았던 것일까? 왜 여자는 남자가 상상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 나는 거부한다. 나는 개성과 능력을 중시한다."

"술자리에서 남자선배가 부축을 가장해 피부접촉을 심하게 한다." —이상 화장실 낙서판에서 발췌—

'성폭력 특별법안' 개정에 부쳐...

성폭력특별법에 힘을 실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개정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성폭력 관계법은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 하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 의제 강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의 제목부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정조에 관한 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의 문제점은 성폭력이란 정조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바로 폭력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법의 제목이 중요해지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조에 관한 법'이라고 했을 때에는 법의 적용 대상은 물론 가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조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서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이 이 사회에서 정조를 지켜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일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정조를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애초 여성이 밤거리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법은 해준 여성을 강간한 범인에게 중형을 내리지 않는다. 해준 여성은 이미 이 사회에서 정조를 잃어버린 여성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켜 줄 정조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상가 중심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 사회에서의 정조란 개념은 단지 처녀막의 유무로서만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이상 순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정조를 잃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명백히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가 아닌 폭력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가해자에게 순결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육체를 침해당했다는 인식으로 수치심과 죄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친고죄의 폐지'를 들 수 있겠다. 원래 친고죄라는 것은 성폭력의 피해가 정조의 관련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성폭력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신고되었을 때 피해자가 말할 수치심을 조금이나마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 이러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에서 서술했듯이 친고죄라는 것도 당연히 성폭력이 여성과 순결과 관계된 것이라는 생각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을 '정조에 관한 법'이 아닌 일반 범죄와 똑같은 폭력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신고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 집어 강도가 들어 왔는데 그걸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을 동네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폭력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폭력과 범죄일 뿐인 것이다. 그 외, 외국과 입법 관계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성자별 금지법'에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민권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직장내 성희롱 조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것은 현행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간음' 속에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고 유명 무실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며 직장내 성희롱도 엄연히 권력 관계에 의한 폭력이므로 직장 내에서의 성적 희롱을 금지, 규제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 달 전, 여중생이 교실에서 출산을 하고, 어린 소녀가 장미 남성들에 의해 강간당하고, 한 여고생이 학교 길에 출산을 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불고지죄 도입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 사회에서 단지 남성과 다른 여성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지는 성폭력을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여성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육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치심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개정될 성폭력 특별법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결코 남성적 시선에서의 법개정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 들어가기 바란다. ㉕



여성운동의 중심은 '움직임'

여학우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여성운동가 변리나씨와의 짧은 이야기

김인영·홍미리 '참누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리나 참누리란 참 세상, 참 사람 되기 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권력..음 아니라던지 학벌, 경제적 능력, 성 정체성, 그리고 직업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거죠. 주로 참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매춘 여성과 에이즈 감염자, 성폭력을 당한 여성, 여성 동성애자와 같이 소수의 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집단이 참누리를 함께 하고 있구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성정치와 페미니즘, 레즈비어리즘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서동진, 이정우, 변영주씨 등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외에 상담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行動 = 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영·홍미리 요즘 각 학교 총여학생회나 성정치위원회, 제2대학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많은 강좌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올해 우리학교 제1대 총여학생회의 박박이 대학에서도 강의를 맡아주셨다. 아예 앞서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를 선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주로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리나 주로 레즈비어리즘이나 페미니즘, 성폭력 등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춘 문제와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저는 남성 교육자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떠돌고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전 남성교육자들이 떠드는게 싫어 열심히 피 토하고 다닙니다.

김인영·홍미리 올해 2학기때 동국대 총여학생회에서 개최한 박박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정치 강좌 1강과 5강을 이정우씨와 다들 강의, 페미니즘 강좌 1강 강의, 6강 다들 강의) 박박이 대학 '성정치/페미니즘'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리나 한 여성으로 동국대 총여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끼며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박박이 대학의 프로그램에도 만족하구요. 그러나 언제나 여성운동이 그렇듯이 교육을 운동의 중심으로 두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어쩌나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편히 학생들에게 고민만 던져 준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운동의 중심은 바로 움직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여성운동은 있을 수도 없고 교육을

제 12대 총여학생회 김인영·홍미리 선거운동본부에서는 변리나씨를 만났습니다.

변리나씨는 참누리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매춘 지역에서 매춘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학교 여학생운동가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도 늘 하시고 계시구요. 요즘은 각 대학에 강연을 하시느라 너무나 바쁘신 것 같더군요. 긴 생머리에 서글서글한 웃음 그리고 시원시원한 말투가 너무나 인상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픈 경험에 있는 여성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정말 여성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멋있는 여성운동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전 「박박이 대학」에서 강좌를 맡아주시기에 동역의 학우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입니다. 변리나!! 이 멋있는 여성운동가를 이제 동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받고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비굴한 여성이고 노예근성이 가득한 여성이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동국대 박박이 대학 수강생들에게 이런말을 해주고 싶네요. 이제는 움직이자고... 그리고 꿈을 가져보자구요.

김인영·홍미리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성정치와 레즈비어리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레즈비어리즘과 레즈비어리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리나 페미니즘과 레즈비어리즘은 엄마와 딸의 관계예요. 어느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기본적인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레즈비어리즘을 살려야 할 거예요. 게이정치학과 레즈비어리즘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드리엔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체 를 좋아해요. 모든 여성은 레즈비언이라는 것. 아니 모든 여성은 레즈비언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김인영·홍미리 마지막으로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리나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싶은데 우선 첫번째는 이제 남성의 교육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예요. 남성은 언제나 여성의 상위문화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가 노동자이건 알콜 중독자이건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여성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남성의 문화중에서도 상위문화속에 습관처럼 생활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언제나 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성을 노예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외없는 남성은 없어요. 이제 각 학교 총여학생회나 그밖에 다양한 여성모임에서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이야기를 교육받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해요. 아무리 배움이 없는 여성이라도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남성보다 멋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두번째로 난 총여의 학우들을 존경해요. 4년동안만....

아쉬운건 그 많은 인력들이 졸업과 동시에 다시 남성의 문화권안에서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대학의 문화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학우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行動 = 승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여학우들, 여성동지들!! 우리 다시 한 번 만납시다. 가부장적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자매애를 가슴에 담고 우리의 몸부림과 한을 무기삼아 여성 동지들, 다시 한 번 우리 만납시다. ㉠

위기를 넘어 대안으로

더이상 학생회의 위기를 말하지 말자!

90 년대에 들어서 대학가의 담론처럼 유포된 학/생/회/의 위/기

이제는 일상적인 구호로 달라마에 빠진 학생사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회자된다. '위기'에 대한 분석으로 학생회 자체에 대한 틀의 해체나 정치투쟁 중심의 과도한 자기규정 타파를 외치며 다각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많은 이들이 '중심의 해체'를 부르짖는다. 이는 학우대중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분파의 흐름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메카니즘으로는 더이상 어떠한 대안도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기 어떠한 대안적 흐름도 이러한 모순구도를 슬기롭게 해체나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구도인 학회 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천목모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학회와 학생회의 위기는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 더이상 어떠한 공동 문화와 공동 이슈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회의 진보적 문제제기 집단이나 학문연구의 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잘 만들어진 부속품이 되기 위한 훈련소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것 외에 더이상 그 무엇도 아닌 것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학생회의 위기, 더 나아가 학생사회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원인을 '학생회와 학우대중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분리'와 '과도한 중심사안에의 매몰'이 90년대 학생회의 위기를 고착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즉 대의제의 모순구도가 학생사회내에서 주체와 객체의 분리, 즉 학생회 일꾼들과 일반학우라는 이분법적 구도하에 요구받는 사람과 요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과 문제제기하는 사람으로 분리가 됨에 따라 학생회는 학생회대로 열린 학생회가 아닌 문이 있는 학생회로, 학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학생회 그리고 실질적인 학생회 일원이 아니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학생회로 그 구도가 고착화된 것이다.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존재하는 학우들의 흐름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오직 학생회에서 상징한 하나의 중심적 사안에만 참여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추동이 되어 운동성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우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지위원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변모했으며, 행사에 유명 가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는 '학우들로부터 소외된 복지위원회'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더이상 발을 동동 구르며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더욱이 대부분 제출되는 대안으로서 '단위 학생회 강화'는 이제 추상적인 구호일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단위학생회를 강화할 것인가? 이 흐름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학생회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지고 다양하게 분화되어 존재하는 학우들을 하나로 모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변화된 지형에 착목하고 더이상 낡은 형태의 학생회가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틀의 학생회로 '학/생/회/의 위/기'를 넘어 '학생사회 전체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험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 이상 '학/생/회/의 위/기'를 말하지 말자.

다양하게 분화되어 존재하는 학우들의 흐름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오직 학생회에서 상징한 하나의 중심적 사안에만 참여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추동이 되어 운동성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97년 학생회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

왜 우리는 말하지 않는가?

이미 타자화된 학생회사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차 있으면서, 그리고 '차라리 내가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수업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때로는 공개화된 공간에서 전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 표출할 기회도, 자신도, 방법도 이제까지 한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회 선거에서 단지 유권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 그 하나만으로 아침 저녁으로 후보자들에게 인사받고 왕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다. 그 이후 더이상 내가 참여할 곳은 없다. 단지 학생회에서 마련하고 준비한 사업에 관망하는 관객으로만 참여하면 될 뿐이다. 자신의 관심을 투하시킬 그 무엇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학생회의 관심영역과는 괴리된 주변적 사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반목적인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이것의 문제점들을 관통하며 학우들과 학생회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활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의 하나가 바로 '주체운동'의 창출 및 활성화이다. '주체운동'이란 환경, 언론, 노동, 문화, 통일, 과학기술 등 관심있는 주제를 설정하여 운동의 전문성을 담보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총체적인 사회모순을 깨뜨려 나가는 운동이다. 이들이 현재의 구도와 다른 점은 전체운동이 아니면서 '운동'으로 사고되어지지 않고 개인적 관심사나 부문적 운동이라고 치부되었던 영역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재구성을 통해 운동성과 개인의 전망성을 함께 담보해 낼 수 있는 주요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아리의 형태로만 포진해 있는 주체운동 형태들을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운동 형태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다양한 주체운동의 결과물들을 학생회가 담보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현 사회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경제와 정치, 문화, 그리고 나의 문화와 그의 문화의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지 않고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문화 영역의 창출속에서 이제 더이상 곳곳에서 여러 기제들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할 구도를 우리는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중심적 운동만을 상징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입장에 기반한 다양한 중심을 창출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나'의 위치로부터 중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대리주의가 아닌 그리고 객체적 운동이 아닌 '나의 운동'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제12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학생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학우들의 자발적 운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운동'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며, 이는 '성정처위원회' 건설로 그 실행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의 정치적 실천, 나 자신으로부터 창출되는 운동 그리고 성을 매개로 발현되는 우리의 억압을 실천적으로 담보해 낼 수 있는 '성정처위원회' 건설은 90년대 학생회 위기에 대한 그 선도적 대안창출과 주체운동의 실험적 모색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다. ①

일상에서의 정치적 실천, 나 자신으로부터 창출되는 운동 그리고 성을 매개로 발현되는 우리의 억압을 실천적으로 담보해 낼 수 있는 '성정처위원회' 건설

제11대 총여학생회 평가

제11대

총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 강화'와 '단위 마련을 위한 원칙과 대안 마련'을 전체적인 사업 기조로 제출하고 이 속에서 (동약여성) 발간, PC통신 활동, 벽막이대학에서 '성정치/페미니즘 강좌' 마련, 모니터제도 실시, 성폭력 신고센터 마련, 여학생 휴게실과 생리대 자판기 시설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2대 총여학생회는 제11대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고 이 속에서 97년 총여학생회의 전체적인 기조를 생산해 내고자 한다.

성담론형성

총여학생회는 올해 1학기에 제1회 '동약 성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성담론'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하고 자본주의의 억압된 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동약내에 성에 대한 담론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어떤 뚜렷한 이슈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우들 사이에서 성담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2학기 들어 개최한 벽막이대학 '성정치/페미니즘' 강좌에서는 —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 학내에 새로운 '소통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었다. 현시기 교육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문화제에서 무작위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성, 특히 성정치와 페미니즘을 강좌를 통하여 학습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여내는 과정에서 학우들이 체계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관심을 정립시킬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이다.

단위건설

총여학생회는 '성문화제'와 '벽막이 대학'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중심으로 학우들에게 총여학생회를 알려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동약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단위 마련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제11대 총여학생회에서도 단위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으로 모니터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자발적인 소통의 단위로써 학회를 상징하였다. 그러나 모니터제도는 단위 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성과 그 내용을 실현하는 부단한 과정이 없다면, 총여활동의 — 매개체 역할로는 의의가 있겠지만 — 실질적인 단위 건설을 내어오기에는 부족하다. 게다가 모니터의 역할이나 총여학생회와의 위치 등 정확한 위상 정립이 되지 않아 총여에서 기획한 사업의 실행자나 기획단 형식으로써 존재할 수 없었고, 각 모니터 요원들에게 '과(단위)'의 주체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고민을 던져 주지 못했으며, 단순히 총여의 주어진 사업 일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단위 건설의 과정으로써 상징한 학회의 지지/강화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학회의 부재와 총여학생회와의 연계지점의 미비로 인하여, 아래에서부터 고민되어지는 단위의 건설을 추동해 내고자 했던 과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12대 총여학생회는 단위 건설에 있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약여성

실질적으로 학우들과 함께하고 총여의 활동을 알려내며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통로로써 제11대 총여학생회는 '동약여성'이라는 기관지를 개간으로 발간하였고 동국대 통신 동호회내에 총여학생회망을 개설하여 통신을 매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즉, 더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매체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하였고 나름대로 여성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학우들의 의견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의 부족, 동약의 여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때 제때 제공되지 못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

성폭력신고센터

대학내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를 여론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제11대 총여에서 설치한 [성폭력 신고센터]를 알고 있는 여학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동약에서는 성폭력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것일까?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내고 그에 관한 올바른 담론을 형성해 내기 위해 마련된 '성폭력 신고센터'는 그 의의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였다. 전문적으로 고민할 사람의 부재로 인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올바른 여론의 형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실제로 [성폭력 신고센터]라는 것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언제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를 받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는가. 여기에 바로 제12대 총여학생회의 활동 과제가 놓여 있다.

제12대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을 재재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자 한다. 즉 전반적인 사업속에서 '우리가 다 하겠소'라는 뉘앙스가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전히 동약의 여학우들은 휴게실 공간의 부재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그리고 학교 안에서 생리대를 구할 수 없는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것은 총여학생회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약의 여성들이 함께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만이 해결 가능한 것이다. 동약의 남성중심적인 공간과 복지속에서 여성의 공간과 복지의 문제는 상충안의 협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12 대 총여학생회 기초

이제, 제 12대 총여학생회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초를 제출한다.

동악내 올바른 성담론의 형성과 이를 통한 성의 정치 구현!!

제 12 대

제 12대 총여학생회는 제 11대 총여학생회의 성과를 받아 안고 그들의 한계점을 뛰어 넘으려고 한다. 곧 제 11대의 커다란 성과 - 학내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라고 할 수 있는 「성문화제」와 「빼빼이 대학」을 발전적으로 받아 안아, 학내에 여성억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고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성은 더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성의 문제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문제라는 점, 이를 통하여 사회에 총체적인 문제 제기과 해결 방식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11대 총여학생회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성모순에 대한 인식제반을 마련했다는 성과는 있다. 그러나 아직 동악내에는 「빼빼이 대학」의 여성성기를 보고 그것이 해운부의 성기인지 아니면 일반여성의 성기인지가 논쟁거리이며, 여성 스스로도 그것을 보며 수치심을 느낀다. 「풍란의 거리, 천호동 사창가 앞에 모여라」라는 글에 분노한 학우들이 대자보를 붙여도 "그게 뭐 논쟁거리나 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오히려 당당하다. 성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상적 억압의 기제로 작용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호기심과 흥미거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왜 성은 우리의 몸을 흥분시키는 환각제같은 표상만이 우리의 인식체계속에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매스미디어와 여러 방식들을 통해 누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런 필터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강의실에서만이 아닌, 「성의 역사」와 같은 두껍고 어려운 책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식의 틀과 행동양식을 실천적인 것으로 위치짓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 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이러한 실천적 행동양식을 담보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악내 올바른 성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성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힘차게 펼쳐나가고자 한다.

일상의 전복을 꿈꿔... 아예 반쪽의 반란이 시작된다!!
동악 여성이여,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자.

제 12 대

여성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내지 않는가? '참는 게 미덕'이라는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에 여전히 포위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가부장제도 하에서 여성의 묵묵한 인내는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당한 무보수 가사노동이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항변없이 이루어지고, 과거 여인들이 사회생활로 많이 진출하지 못하고 가사와 육아에만 노동을 집중했던 일이 그대로 전수되어 사회생활을 하든 안하든 "여자가 아이 교육도 안시키고 뭐하는 거야?"라는 말이 아직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동악의 여학우에게 묻는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불리우는 대학사회내에서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

우리의 일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식의 틀과 행동양식을 실천적인 것으로 위치 짓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 12대 총여학생회에 서는 이러한 실천적 행동양식을 담보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동악내 올바른 성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성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힘차게 펼쳐나가고자 한다.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사라져도 성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남아 있던 역사를 돌아보며, 사람들은 여성을 '희후의 식민지'라 부른다. 모순이 있는 곳에는 그 결과가 승리이든 패배이든간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것은 항상 나온 삶을 향해 도전해온 인간이라 불리는 종적의 자량이다. 유독 모든 비판의 소리가 무었던 '여성 문제'의 영역에서도 크게 변한 것은 없다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 청녀) 서문 중에서

언제나 '여성 문제'를 들추어 내는 것은, 또한 제기하는 사람이 여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나체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다. 너무나도 분명히 모순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더 커다란 모순이라 부르는 테두리 속에서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수치스러운 문제로, 지겨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여성은 드센 여자라거나 얼굴이 못생겨 콧물 콧수염이 많은 여자라거나 가정 문제가 있는 여자라거나 어렸을 때 강간을 당했던 여자라는 생물학적, 정신적 원인을 들어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또한 이성과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전형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 교육받은 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다. 왜 항상 여성 문제는 이를 끄집어 내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라고 인식되어져야만 하는가? 이는 동악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악의 모든(-x) 여성이 필요로 하는 생리대는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보다도 찾기 힘든 귀중품이면서도' 생리대 자판기 설치해 주세요'라는 말이 그렇게도 하기 어려운 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뛰고 놀자는 체육대회에서 응원만 하기는 싫은데 발아구/고무줄이라도 넣어 주면 안되나? 글쎄면 수명이 다하는 스타킹은 사기도 팔기도 썩스러운 물건인 것을. 동국관앞은 남성 전용 축구장이나 주차장이라 명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공대 농구장은 당연히 남성을 위한 공간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같다. 동악내에서 여성의 공간은 어디인가? 앉아서 쉴 수 있고 담배라도 하나 태울 수 있는 공간. 스타킹이라도 편히 갈아 신을 공간은 어디인가?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여성의 친밀성과 연대감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여성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공간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활동에 제 12대 총여학생회가 힘찬 출발을 시작하고자 한다.

더이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도 당연히 동악의 주인임을 선포하자. 여성의 삶은 늘 사적화된 영역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여성은 역사속에서 공적인 영역에 속해본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왜 사소한 일이라고, 정치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동악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자.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쟁취하자.

제 12대 총여학생회는 동악에 진보적인 성담론을 형성해 내고,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제는 지배자에게 눈과 귀를 빼앗기는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절대적이라 여겨진 남성 중심의 신화와 자본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여성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새로운 '자본'과 '신화'를 창출하기 위해 제 12대 총여학생회가 앞장 설 것이다. ㊤

더이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도 당연히 동악의 주인임을 선포하자. 여성의 삶은 늘 사적화된 영역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여성은 역사속에서 공적인 영역에 속해본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왜 사소한 일이라고, 정치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동악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자. 우리의 권리를 당연히 쟁취하자.



동약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동약 여성복지의 현재

“나의 꿈은 아주 소박합니다. 한번 들어 보실래요?”

학교 안에서 만나는 눈치 안보고 달배 들고 활보하는 거랑요.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거랑... 무료로 배급되면 참 좋겠단.

폭신폭신한 소파와 침대가 있는 휴먼 휴게실과 금연 휴게실을 들락날락하며 수다 떠는 거랑요.

딱 하루만이라도 동국대 앞 쪽구터에서 고무줄이랑 오징어 하는 거랑... 그리고...”

우리의 꿈은 참으로 소박하다. 너무 소박해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조차,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한 번에 치워 두었나보다.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소박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지금도 꿈인 걸까.

생리대자판기

동약의 여성들은 교내에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한다. 울초에 제 11대 총여는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획서 제출 등 활동을 벌였으나 결국 생리대 자판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예산의 분배 과정과 수지타산을 고려해야 하는 수익사업 속에서 우리들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날이 갈수록 고금스러워지고 비싸지는 생리대의 가격을 보자. 사치품도 아닌데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하고, 꼭 써야만 하는 필수품임에도 대기업이 생산을 맡으며 부담은 개인에게 돌리는 참들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모든 가임여성이 구매자인 생리대, 이 얼마나 확고하고 넓은 시장인가?). 또한, 예산 분배 및 수지타산 등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지는 우리들의 요구를 보자. 한달이면 사흘에서 다섯 동안은 꼭 생리대를 써야만 하고, 더구나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이기에 자판기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 과연 누구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일까. 잠시만 상상을 해보자. 만약 남성이 생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사들은 심장마비나 암보다는 생리통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 것이다. 분명 생리란 부럽고도 자랑할 만한 남성적인 일이 될 것이고, 생리대는 정부가 무료로 배포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동약의 곳곳에서 생리대 자판기를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1) 글로리아 스타이닝의 「여성학명칭부에 대한 공식(현실문화 연구회, 중 「남자가 똥을 한다면」에서 부분 인용했다. 참고로 글로리아 스타이닝은 미국 최초의 여성운동 잡지 「미즈 MS」의 창간인이자 초대 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이며 동시에 여성운동가이다.

공간의 문제

교정을 한번 둘러보자. 반은 주차장, 반은 남성 전용 족구장이 되어 버린 동국대 앞은 지나가기도 힘들다. 도서관 앞도, 불상 앞 전디밭도, 과학생체실까지... 여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이 되지 못한다.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정말 거리낌없이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무엇이든 해도 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선을 물려한 문제에 국한을 시켜보더라도 여성은 끊임없이 바라봄의 '대상'이 된다. 시선의 문제는 단순히 '바라봄'과 '보여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권력은 어떻게 부여되며 누가 갖고 있는가, 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의 문제까지 도출될 수 있다.

동국대라는 공간은 이러한 권력관계 - 지난 9월 어느 남자고교 동문의 알림공고에 '사창가'란 단어가 명시되고 이에 몇몇하우들에 의해 자보들이 붙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사창가 운운한 그 공고는 분명 성폭력이었으며 동약의 예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다. -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휴게실이 필요하다. 여학생 휴게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들은 학교 앞 카페로 내려간다. 우리는 그 곳에서 숙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전화도 쓰고 수다도 떠든다. 비싼 커피값도 마다 않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들에게 권력적인 시선과 언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휴게실일 수도 있고 혹은 비물리적인 공간, 여성이 더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 주인이 되어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일 수도 있다. 그 공간은 커피 한잔 값이면 살 수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공간들은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남성중심적이고 권력적인 구조들을 깨뜨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여성학교실 이데아

동약 여성학강좌의 현재

“여성학? 이젠 뭐야? 여성의 신체에 대해 가르치는 건 아닐테고 ... 그렇다고 현모양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건 더더욱 아닐 것 같은데 ... 이거 남자는 못 듣는 건가? 도대체 뭘까? 점수는 잘 주니? 출석 포박포박 부르는 거 아냐? 아무튼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겠다.”

시간표를 맞추며 여성학 강의를 수강신청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며, 관심 반 호기심 반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을 것이다.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또 분반되면 어쩌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꼭 차 앉을 자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이리저리한 강의 목표 및 계획을 전성으로 듣다가 막상 수업이 진행되면 노트 필기를 하며, ‘음! 이젠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혹은 ‘날씨도 죽이는데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 발표수업에, 중간고사에, 리포트에, 기말고사에 ... 대체로 이런 과정을 거쳐 종강을 하게 된다. 점수만 잘 나오면 만사 평이고, 그 수업은 괜찮은 수업, 즉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과목이 된다. 그러다가 혹 자신이 냉철히 볼 때면 ‘앗! 이젠 아닌데...’ 하는 생각과 함께, 폭발하는 조바심, 허무함... 이런 현상은 물론 여성학 강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테지만, 특히 ‘여성학’ 강의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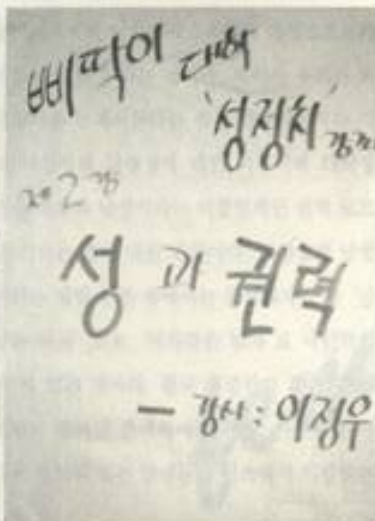
여성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다르게 실천적 관심, 즉 여성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사회 제 문제들을 고찰해보고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실천으로부터 출발한 이론이고 학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과 여성학은 그 길을 함께 걸어왔다. 즉 실천과 결부되지 않는 여성학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학 강의의 의미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인식을 바로 잡는데 있다. 즉 여성이 받는 남성과의 차별속에서 사회화된 여성성을 성찰해 보며 사회화된 여성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준다는 것이다. ‘사회화된 여성성의 성찰’이란 여성으로 자라온 삶과 우리들의 일상을 되돌아 보고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올바른 성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학은 우리가 가정에서, 술자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겪는 일상적인 경험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학 강의는 여성들의 일상을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이러한 수다(선생님과 학생간의 의사소통)를 통해 사회적인 성 차별과 여성의 억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약에서 교양선택 과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학 강의를 살펴보자. 먼저 교양선택 과목으로서의 여성학 강의는 지속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올해를 보면 1학기에는 여성학 강좌가 폐지되었다가 2학기에 다시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강좌가 생겼다. 또한 여성학이라고 틀 지워진 각 강좌의

커리큘럼 보면 별 차이가 없다. 네 강좌 모두 여성학의 개요, 성차의 이해, 결혼과 가족, 여성과 일, 여성운동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1, 2학년이 듣는 과목과 3, 4학년 대상의 여성학 과목이 분리되어 있어 좀더 심도 깊은 강의를 기대할 수 있고, 경희대의 경우도 [여성학 개론] [성차 심리학] [성인식과 성문화 분석] [여성의 역사] 등등으로 강좌가 차별화 되어 있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의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 동약에는 여성학 전공 교수가 없다는 점이다. ‘단지 여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여성학 강의를 하나?’라는 의문점과 함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 이론 중심적인 수업 방식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제 12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여성학 강좌의 문제점을 학교에 제기하고 수강하는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성학 강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여성학 강좌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강좌를 평가하고 학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효들을 강사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여성학 강좌의 커리큘럼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권 내의 여성학 강의를 강제해 들어가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진보 강좌를 마련하고자 한다. 올해 벵이 대학 「페미니즘/성정치」 강좌를 통해 얻어낸 다양한 성과들을 받아 안고 실천으로서의 학문인 여성학의 특성을 살려 현장 여성운동가/여성운동단체와의 연계속에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업 방식을 실험하고 동약의 학우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겠다.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좌를 열어나감으로써 동약내 성담론을 형성해 내고 수다로 만들어지는 여성들만의 친밀적인 공간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④



Sexuality

우리에게 가장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늘 공적인 영역에만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붙어있는 낙인들은 '왜 성만 이야기 하느냐'에서부터 '왜 자꾸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을 확대하려 하느냐', '성이 어떻게 정치적인 수 있느냐'하는 딱딱한 불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페미니즘/페미니스트들이 언제나 사적화되어 있는 여성의 일상을 드러내고 사적 영역에서의 의제들을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들을 해 왔음을 알고 있다. 여성에게 할당되어 있는 사적 영역 즉 가족에서의 여성의 위치,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라는 문제들을 공적인 담론으로 의제화 시키기까지의 노력과 이러한 사적화된 영역이 얼마나 지배 질서의 권력망에 촘촘히 얽혀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바로 그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일상은 수없이 많은 지배 질서의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이 정치적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의 정치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제도, 문화, 이데올로기 등 인간의 행위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이것을 구조화하는 지배 질서의 틈새를 파고드는 실천적 행위이다.

성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즉 권력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영역이며 '성'이 사회적/역사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은 해체할 수 있다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억압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즉 지배 질서가 규정하는 낙인으로서의 정체성(남성중심사회의 여성)을 딛고 저항적인 정체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권력 코드인 젠더 Gender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여성'이라는 저항적 정체성을 딛고 여기에 기반하여 싸워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더이상 동일한 여성의 억압과 이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여성의 억압이란 단지 여성 내부의 차이를 무마하고 그 내부에서 좀 더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해가 마치 모든 여성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여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여성의 다름, 차이에 착목하지 못하는 것이 여성운동에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여성 개인에게 있어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대간의 차이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의 문제가 동일인가?) 계급적 차이, 성적 정체성의 차이 (이성애자 여성인가 아니면 레즈비언인가) 등등에 따라 표출되는 억압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만이 진정한 연대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나는 어떤 여자인가'라는 규정속에 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여성들과 손을 맞잡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피지배계급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슬라미스 화이트스톤은 [성의 변증법]에서 성이 계급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성은 태어나서 숨쉬는 모든 순간 여자로, 노예로 길러진다. 끊임없이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당하며 여자로, 노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속에서 자기 자신을 '여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여성의 불행성을 인식하고 노예로서의 자신의 일상을 깨

닫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생식중심, 성인중심의 이성애만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이성애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을 고찰하고 여성의 억압과 동성애자를 비롯한 각종 성적 소수자들의 억압을 읽어낼 수 있다. 이성애주의란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구조화하는 일련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억압을 말한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이성애란 기존의 억압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여성이어야만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며 (결혼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남성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상품적 가치를 부여받는 것) 사회에서 요구되어 지는 여성성에서 벗어나 여성(매춘여성들과 같은)들은 이미 이성애제도내에서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애주의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강요되어지는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거부이며 더이상 인간을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권력 코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반란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성별 구분 속에서는 동성애자란 늘 '남자같은 여자' 또는 '여자같은 남자'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성애의 문제, 동성애자만의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힘겨워 하는 남성들과 이속에서 억압받는

feminisms

여성들 그리고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들은 한국 같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성차별주의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지배질서와 위계적 권력 전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은 학우들이 자신의 삶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의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고단함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왜 이성애주의가 문제인지, 나는 왜 이성애자인지, 왜 우리는 늘 성폭력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의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몸과 삶을 관리해온 권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여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깨뜨려 나가기 위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가 마련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성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화'와 '각본'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기만적인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기반이 아닐까.... 대안은 바로 이러한 과정과 실천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 주어진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움직이는 여성공간 여성단체소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불이익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①여성이 참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사회 ②일반시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재권리가 증진되고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여연의 활동은 ▲여성권의 관련 입법 제개정 활동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 활동 등을 합니다.
☎ 273-9535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년 4월 성폭력의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소는 성폭력의 피해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기 위한 활동,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 576-7128

한국여성의 전화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가 개원하기 이전 1년의 준비기간동안 한국 갭업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자료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2.2%의 여성들이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여성의 전화 설립의 가장 큰 근거 기반이 되었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담으로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주기적인 구타에 시달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내들의 호소로 이뤄져집니다.
☎ 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198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직 여성들과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입니다. 민우회에서는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주부들의 환경운동, 여성인권운동, 생활협동운동 등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펼칩니다.
☎ 277-7883

두레방

1986년에 문을 연 이후 10년 동안 기지촌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과 일반인들에게 기지촌의 문제를 알려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민간단체입니다. 두레방 프로그램으로는 ▲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공동식사-매매춘이 주로 밤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여성들과 나이가 들어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 0351-841-260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1990년 11월 16일 36개 여성단체가 모여 조직되었습니다. 발족 이후 정대협은 지금까지 ▲일본정부, 일본국회에 대한 활동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의 연대활동 ▲생존자들의 복지활동 등을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냄으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합니다. ☎ 365-4016

제 12 대 총여학생회

이렇게 건설하겠습니다



1

입상의 비판, 축제의 마약

제2회 동약 성문화제

올해 제1회 동약 성문화제에서는 '자본주의하의 억압된 성'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인형극, 페미니즘/게이영화제, 동약성문화상 공모전 및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여내었으나 어떠한 뚜렷한 이슈를 잡아내지 못한채 다소 추상적인 구호로만 진행된 행사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제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성 담론 형성의 주요한 자리로써 제2회 동약 성문화제를 더욱 알차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번째'라는 것은 낯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우연'을 '재연'으로 만들고 다시 세 번째의 '반복'으로 가기 위한 Gate keeper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성과와 한계의 변증법적인 대립항이기도 합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성을 둘러싼 우리의 일상속에서 학우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입상의 비판을 벌여낼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동약여성'의 전문성 강화

2



제11대 총여학생회는 총여의 소식지이자 학우들과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동약여성' 봄/여름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동약에서 유일하게 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매체로서 그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확실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였고 동약의 여학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과 성정치의 문제를 고민하는, 더불어 이것을 중심에 둔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알려 나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매체로서 '동약여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제12대 총여학생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동/약/여/성을 선보입니다.



3

성폭력신고센터의 강화!!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센터'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제11대 총여의 '성폭력 신고센터'는 홍보의 부족과 집중적으로 고민할 사람의 부재, 전문성 결여 등의 한계를 내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2대 총여학생회는 동약내에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려내고 학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해 '성폭력 신고센터'를 독자적인 기구로 설정하고 신고 접수, 상담활동, 성폭력상담소 등의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더 나아가 학내 행정단위와 협력하여 성폭력방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4

대안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성 담론 형성!!

‘삐딱이 대학’ 진보강좌

제 11 대 총여학생회에서는 96년도 2 학기에 성정치와 페미니즘, 정치경제학 분야를 주제로 자치대학을 향한 대안적 질서의 창출- 삐딱이 대학을 개최하였습니다. 삐딱이 대학은 학교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는 별도로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치적 교육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올해의 삐딱이 대학 [성정치/페미니즘]강좌는 기존의 여성학 수업이 담보하지 못하는 진보적인 커리큘럼과 다양한 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성과 일상을 문제제기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해 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 1 회 개최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우선 올해의 강좌는 다양한 학습 방법의 실험이 부족하였고 실천적인 학문/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성정치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여전히 강의실내에서의 학습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12 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여 ‘대안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성 담론의 형성’을 동아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정치와 페미니즘이라는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상을 다양한 문화적 형식으로 표출하는 방식이나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수강생들이 직접 운동 단체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경험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대안적인 교육질서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단위마련의 실질적 대안, 자발적인 실천공동체

성정치 위원회 건설

5



‘성! 도대체 뭐지?’

‘어떻게 성이 정치적일 수 있을까?’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억압과 불행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는 있을까?’

제 12 대 총여학생회는 기존의 모니터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성정치위원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모니터제도는 총여 활동을 평가해주고 여론을 수렴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내고 성정치/페미니즘에 관한 학습을 심도 깊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학우, 여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을 둘러싼 억압을 문제제기하고 실천속에서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공간으로서 ‘성정치위원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우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벌어나가는 운동의 공간으로서 ‘성정치위원회’를 만나보십시오. 당신을 연구위원으로 기다립니다.

6

여성단체와의 적극적 교류

타학교 총여학생회/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와의 적극적 연대



올해 5월에 개최한 성문화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모든 여성운동단위에서도 성을 주제로 한 문화제를 기획하였지만 각기 고립된 행사로 그쳤다는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별로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공유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가운데 더욱 풍부한 운동을 힘차게 벌여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제 12 대 총여학생회는 적극적인 연대사업을 고민할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에 있어 여성운동단체와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삐딱이대학에서도 제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학습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몇몇 학교들이 ‘들쭉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12 대 총여학생회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7

이제 더이상 방관할 수 만은 없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위한 대중 집회

동약에는 여학우가 4천에 달하고 우리는 달의 주기에 맞추어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리'라는 성스러운 과정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약에는 모든 여학우들이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생리대 자판기가 2년이 다되어 가도록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모든 총여학생회가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올해도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판기 설치과정에 있어 여학우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개나 팔리는지, 자판기 대수당 얼마인지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동약의 현실을 문제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총여학생회 집행국만이 아니라 모든 동약의 여학우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소리를 드려내야 할 것입니다. 학교측의 허술한 변명을 이제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제11대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판기설치는 1년이나 미루어져 왔습니다. 만일 생리대가 남학우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학교 매점마다 생리대를 종류별, 크기별로 진열해 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는 여태까지의 생리대 자판기 설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약의 여학우들의 권리찾기를 행사하는 장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생리'가 결코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공간으로서 대중집회를 벌이고자 합니다.

"이게 과연 집회를 할 만한 사안일까?"라는 질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하다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치적인 것인가를 당당히 말하고자 합니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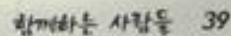
여성들만의 친밀성의 공간, 문화적 연대감의 형성!! 여/성/주/간 선포

우리학교는 남학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 문제를 떠나 지금의 남성중심사회에서 모든 공간은 남성들의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약의 4천여학우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만의 억압을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가는 자리, 여성들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가을 대동제 기간에 여/성/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여성들의 친밀성을 나누고 함께 자매애를 나눌수 있는 신나는 반란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때 친구들과 피구나 발야구를 하며 땀을 흘리던 기억이 어렵뜻하지 않으십니까? 고무줄을 하며 즐겁게 놀았던 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학생 휴게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떠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의 수다를 더이상 여성들의 단점으로 사고하지 맙시다. 우리의 언어로 다시 재규정하고 여성의 무기로 새롭게 만들어 냅시다.

이제 여/성/주/간에서 새로운 문화적 실천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12대 총여학생회 김인영·홍미리와 함께하는 사람들